

갤러리 공격 사건: ‘예술세탁’ 젠트리피케이션에  
저항하기-로스앤젤레스 보일하이츠의  
젠트리피케이션 저항 사례를 중심으로\*  
Gallery Attack: Resisting ‘Artwashing’ Gentrification  
-On the Case Study of Gentrification Resistance  
in Boyle Heights, Los Angeles

강지선 (수원대학교 객원교수)

Chison Kang (Guest Professor, Suwon University)

『현대미술사연구』 제49집 (2021. 6), pp. 87-114

<http://dx.doi.org/10.17057/kahoma.2021..49.004>

- 
- I. 들어가며
  - II. ‘예술세탁’ 젠트리피케이션과 갤러리
    - 1. ‘예술세탁’의 개념
    - 2. ‘예술세탁’과 갤러리의 관계성
  - III. 사례연구: 보일하이츠의 ‘예술세탁’ 젠트리피케이션 저항
    - 1. 저항의 배경
    - 2. 전개과정과 내용
  - IV. 보일하이츠 저항 행동주의의 쟁점과 함의
    - 1. 저항의 성과와 한계
    - 2. 예술, 사회와 정치적 함의
  - V. 나가며

---

## I. 들어가며

최근 젠트리피케이션 담론에서 예술과 관련된 새로운 키워드가 등장하였으니, 바로 ‘예술세탁(artwashing)’이라는 합성어이다. 자금세탁, 녹색세탁(green

---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B5A07106781).

washing)에서 나타나듯이 ‘세탁’이란 불법적이거나 정의롭지 못한 본래의 용도, 의도, 행동을 은폐하거나 위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세탁’은 이제 예술과 짝을 이루어 젠트리피케이션 속 예술의 부정적인 역할을 빗대어 표현하는 용어가 되었다.

원래 ‘예술세탁’은 부정적인 기업의 이미지와 경제적 동기들을 예술을 통해 위장한다는 뜻으로 출현하였다. 그러나 2017년부터 젠트리피케이션 저항의 맥락에서 사용되어 알려지면서, ‘예술세탁’은 젠트리피케이션 논의에서 주목해야 할 주제로 떠올랐다. ‘예술세탁’이란 집값의 상승으로 원주민들이 비자발적으로 쫓겨나는 현상인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정적인 측면과 이면의 정치경제적 동기들을 예술을 이용하여 감추고 긍정적으로 탈바꿈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예술세탁’에 ‘갤러리’가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갤러리’를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2016년 1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보일하이츠 지역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 저항 단체가 니코딤 갤러리(Nicodim Gallery)에 반달리즘을 자행하여, 이를 증오범죄로 추정한 경찰의 수사를 받는 일이 있었다. 보일하이츠에서 일어났던 갤러리 대상의 연속적인 공격과 높은 적대감으로 인해 몇 개의 갤러리들은 결국 문을 닫고 지역을 떠났다.

보일하이츠의 ‘예술세탁’ 젠트리피케이션 저항을 주도했던 ‘예술세탁과 전치에 저항하는 보일하이츠 연대(Boyle Heights Alliance Against Artwashing and Displacement)’는 예술가들 중심으로 결성된 행동주의 단체였다. 이 사건은 쟁투적인 젠트리피케이션 저항 전략과 급진적인 행동주의 미술의 사례로 언론과 학계의 관심을 받았다. 이에 대해 파괴적이고 어리석은 행위라는 언론의 비판이 있었던 반면, 젠트리피케이션과 예술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고 안티-젠트리피케이션 예술 실천의 미래를 가늠하는 사례로서 미술 비평가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교차하였다.

본 연구는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보일하이츠의 젠트리피케이션 저항의 사례를 ‘예술세탁’과 ‘갤러리’라는 두 개의 주제어를 중심으로 고찰하려 한다. 이 연구는 젠트리피케이션에 있어 갤러리를 향한 적대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예술세탁’ 젠트리피케이션 저항 행동주의의 한계, 가능성 및 과제를 예술,

정치, 그리고 사회적인 쟁점과 더불어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보일하이츠의 ‘예술세탁’ 젠트리피케이션 저항이 예술의 사회적 역할에 제시하는 함의를 발견하고자 한다.

## II. ‘예술세탁’ 젠트리피케이션과 갤러리

### 1. ‘예술세탁’의 개념

노후한 동네를 ‘핫 플레이스(hot place)’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동력인 예술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원주민의 퇴출(eviction)을 의미하는 젠트리피케이션과 깊은 연관을 맺어 왔다. 잘 알려진 뉴욕의 소호(Soho), 이스트 빌리지(East Village), 그리고 서울의 삼청동과 한남동 등의 사례들에서 예술, 부동산, 전치(displacement) 간의 관계성은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문헌 속에서 예술은 젠트리피케이션의 촉매제로서<sup>1</sup>, 예술가는 젠트리피케이션을 촉발하는 선구자 또는 공모자로 묘사됨으로써, 젠트리피케이션의 책임에 대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sup>2</sup>

‘예술세탁’은 2017년 무렵 젠트리피케이션 담론에서 예술의 역할에 대하여 주목해야 할 새로운 용어로 등장하였다. ‘예술세탁’은 젠트리피케이션 맥락 속에서 예술의 부정적인 역할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이다. 그러나 ‘예술세탁’이라는 단어의 처음 등장은 기업의 예술후원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3</sup> ‘녹색세탁’이라는 용어가 환경오염과 연관된 제품이나 기업

1. Vanessa Mathews, “Aestheticizing Space: Art, Gentrification and the City,” *Geography Compass*, vol. 4, no. 6 (2010), pp. 660–675, p. 661; Ann Markusen, “Creative Cities: A 10-Year Research Agenda,” *Journal of Urban Affairs*, vol. 36, no. 2 (2014), pp. 567–589, p. 570.

2. 젠트리피케이션의 선구자로서 예술가는 Stuart Cameron, Joan Coaffee, “Art, Gentrification and Regeneration: From Artist as Pioneer to Public Arts,” *European Journal of Housing Policy*, vol. 5, no. 1 (2005), pp. 39–58, p. 40의 내용을, 젠트리피케이션의 공모자로서 예술가에 대해서는 Rosalyn Deutsche, Cara Gendel Ryan, “The Fine Art of Gentrification,” *October*, vol. 31 (1984), pp. 91–111, p. 102를 참조할 것.

3. ‘예술세탁’이란 용어가 언제, 누구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멜 에반스(Mel Evans)가 2015년 출간 저서 『예술세탁: 거대 석유회사와 예술(Artwash: Big Oil and the Arts)』(London: Pluto Press)에서 기업의 예술후원을 비판하는 용어로 ‘아트워시’, 즉 ‘예술세탁’을 처음 이론화 하였기에 이를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에반스 이후 행동주의 이론가인 스티븐 프리처드(Stephen Pritchard)는 2017년 자신의 블로그(<http://colouringinculture.org/blog/artpropertyartwashing>)에서 젠트리피케이션 저항의 맥락성 속 ‘예술세탁’의 현재 진행을 강조하기 위해 ‘아트워싱(artwashing)’이라고 표기하며, 이 용어를 개념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예술세탁’의 출현에 대해서는 Anna Francis,

이미지를 환경 친화적으로 허위 광고하고 홍보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처럼, ‘예술세탁’은 예술을 이용하여 좋지 않은 기업의 이미지, 자본주의적 동기들을 의도적으로 위장하는 것을 말한다. 즉, 기업이 부정적인 공공 이미지를 덮고 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예술, 문화공간과 관계를 맺어 후원하고, 이를 홍보 혹은 광고하는 행위를 ‘예술세탁’이라 일컫는다. 그리고 ‘예술세탁’의 궁극적인 목적은 상업적 이해와 관련이 있다.<sup>4</sup>

이러한 ‘예술세탁’을 대표하는 사례가 영국 석유회사 BP(British Petrol)의 런던 테이트(Tate) 미술관 후원이다. BP는 오랫동안 테이트를 후원해 왔다. 그런데 후원의 궁극적 목적이 미국 멕시코만 기름 유출 사건 등의 환경 파괴와 관련된 주의를 환기하고, 기업 이미지를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2010년부터 6년간 행동주의 미술 단체인 ‘테이트를 해방시켜라(Liberate Tate)’에 의해 전개된 캠페인은 BP의 ‘예술세탁’과 테이트 후원에 저항하기 위한 움직임이었다.<sup>5</sup> 정리하자면 ‘예술세탁’은 기업주의적 동기, 형태, 행위들은 은폐하거나 좋게 포장하기 위해 예술을 이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예술세탁’은 예술을 통해 진실을 감추고 속이며, 허위 이미지 또는 잘못되거나 편파적인 정보를 유포하고, 거짓된 주장을 하려는 목적으로 출발하였다. 그러므로 ‘예술세탁’은 광고, 홍보, 사회적 허용(social license), 혹은 커뮤니티 회유라는 역할을 수행한다.<sup>6</sup>

행동주의 미술가이자 연구자인 스티븐 프리처드(Stephen Pritchard)에 의하면 ‘예술세탁’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감추고 원활히 작동하게 만드는 도구로 예술을 이용하는 것이다. 특히 “탈취(dispossession)에 의한 축적”이라는 자본주의의 폭력성과 억압적인 행위를 감추기 위해 예술을 이용하는 것이 곧 ‘예술세탁’이다.<sup>7</sup> “탈취에 의한 축적”은 지리학자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의 개념

---

“‘Artwashing’ Gentrification is a Problem—but Vilifying the Artists Involved is not the Answer” (October 5, 2017), <https://theconversation.com/artwashing-gentrification-is-a-problem-but-vilifying-the-artists-involved-is-not-the-answer-83739> (2021년 4월 5일 접속)의 내용을 참조할 것.

4. Mel Evans (2015), p. 13.

5. 캠페인의 내용에 대해서는 ‘테이트를 해방시켜라(Liberate Tate)’의 홈페이지(<https://www.liberatetate.org.uk/>)를 참조할 것(2021년 3월 20일 접속).

6. Stephen Pritchard, “A Brief History of Art, Property and Artwashing” (October 2017), <http://colouringinculture.org/blog/artpropertyartwashing> (2021년 3월 21일 접속).

7. Stephen Pritchard (2017), n.p.

으로, 칼 마르크스(Karl Marx)의 “시원적 축적”에서 유래하였다. 하비는 초기 자본주의의 노동 착취를 통한 확대 재생산, 토지의 사유화와 상품화 및 소농인구의 강제적 배제 등 자본의 “시원적 축적” 과정의 약탈적이고 폭력적 행위가 오늘날 신자유의적 자본주의에서도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음을 역설한다. 자본주의 폭력의 지속성을 강조하기 위해 하비는 “시원적 축적”을 “탈취에 의한 축적” 개념으로 대체하고자 한다.<sup>8</sup>

하비는 도시의 건조 환경(built environment)에 대한 투자와 재편을 통해 자본을 축적하는 과정을 “탈취에 의한 축적”으로 설명한다. 하비를 비롯한 학자들이 젠트리피케이션을 자본 축적을 강조하는 신자유의 도시화로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면<sup>9</sup>, 자본의 억압과 폭력적 현실을 감추고자 하는 ‘예술세탁’의 의미가 젠트리피케이션과 어떻게 관계를 맺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술세탁’은 젠트리피케이션의 맥락 속에서 저항 행동주의자들이 사용하면서 널리 알려지고 있다. ‘예술세탁’ 젠트리피케이션이란 ‘탈취에 의한 축적’, ‘전치’와 같은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점을 은폐하고, 젠트리피케이션 과정을 원활하게 만드는 수단으로서 예술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sup>10</sup> 즉, 지역의 미화, 예술적 삶의 질 개선 등 예술의 좋은 이미지와 긍정적인 영향력으로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회유하며, 홍보하는 도구로 예술을 이용하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정적이고 폭력적인 현실을 감추는 것이 ‘예술세탁’ 젠트리피케이션이다. ‘예술세탁’은 현재 젠트리피케이션 논의에서 더 많이 등장하고 있지만, 예술의 미적 경험과 사회적 영향력을 통해 자본주의 착취의 물질적인 조건과 경제적인 동기를 감추는 것이라는 초기의 핵심 의미는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sup>11</sup>

8. 데이비드 하비, 『세계를 보는 눈』, 최병두 (역), 파주: 창비, 2017, p. 438.

9. Sinéad Kelly, “Taking Liberties: Gentrification as Neoliberal Urban Policy in Dublin,” Andrew MacLaran, Sinéad Kelly (eds), *Neoliberal Urban Policy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City* (Hampshire: Palgrave Macmillan, 2014), p. 174.

10. Stephen Pritchard, “The Artwashing of Gentrification and Social Cleansing,” Peter Adey, Janet C. Bowstead et, al (eds), *The Hand Book of Displacement* (Hampshire: Palgrave Macmillan, 2020), pp. 181–182.

11. Emmanuel Hamidi, “Visualizing Narratives of Art as Gentrification in the “Artwashing” of Boyle Heights,” *Berkeley Undergraduate Journal*, vol. 34, no. 1 (2020), pp. 1–26, p. 9.

## 2. '예술세탁'과 갤러리의 관계성

그렇다면 이러한 '예술세탁' 젠트리피케이션에 갤러리는 어떠한 연관이 있으며 갤러리들이 저항 행동주의자들의 표적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예술가들은 젠트리피케이션 과정의 선두자로서, 갤러리는 예술가의 뒤를 따르는 후속주자로서 인식된다. 예술가에 의한 생산을 예술 소비와 연계하는 갤러리는 예술 중심의 상권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sup>12</sup> 갤러리는 카페, 바(bar), 레스토랑 등 새로운 상업 공간의 출현뿐만 아니라 최신 유행의 문화적 취향과 소비를 따르는 계층의 유입을 촉진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갤러리는 지역을 중·상류층의 문화 소비와 거주지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갤러리는 지역 경제 구조의 변화,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전치와 연결된 젠트리피케이션 과정을 예고하는 상징적인 존재로 간주되는 것이다.<sup>13</sup> 즉, 상업 갤러리의 역할은 예술가가 촉발한 젠트리피케이션을 더 심화된 단계로 이끄는 견인차로 비유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젠트리피케이션 저항에서 갤러리를 향한 반감의 원인은 갤러리와 시장 중심의 도시개발, 그리고 정치경제 구조와의 관계성 때문이다. 예술과 문화영역이 지역 및 도시 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도시계획과 공공정책은 '창조적 장소 만들기(creative place making)'에 집중하고 있다. 창조산업의 일부로서 갤러리는 예술적 공간 조성과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갤러리의 운영은 정치·경제 권력의 지원과 연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sup>14</sup> 빈곤하고 낙후된 지역의 경제 개발을 위해 정부나 개발업자들은 '예술가 주도 젠트리피케이션'의 과정을 도입하여 예술가 나아가 갤러리, 문화 공간을 지역에 이식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종종 젠트리피케이션은 재활성화 또는 재생이라는 새 이름으로 옷을 갈아입는다.<sup>15</sup> 젠트리피케이션의 주요 행위자가 예술가로부터 문화를 이용한 공공

12. Aaron Shkuda, *The Lotts of SoHo: Gentrification, Art, and Industry in New York, 1950-1980*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6), p. 8.

13. Vanessa Mathews (2020), p. 665.

14. Aron Shkuda, "The Art Market, Arts Funding, and Sweat Equity: The Origins of Gentrified Retail," *Journal of Urban History*, vol. 39, no. 4 (2013), pp. 601-619, p. 603.

15. Stephan Pritchard (2020), p. 181.

정책, 특히 재활성화 정책으로 바뀌고 있다는 주장은 이와 같은 배경에서 출현했음을 알 수 있다.<sup>16</sup>

앞서 언급하였듯이 갤러리는 카페 등의 새로운 상업 공간뿐만 아니라 관광객과 더 부유한 계층을 끌어들이면서 지역을 문화 소비의 공간으로 변화시킨다. 이로 인해 조성된 예술적 분위기와 외관은 지역의 매력도를 높여 중·상류 계층의 이주를 유도함으로써 지역의 계층 구성 변화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뉴욕의 소호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문제는 이러한 계층의 변화가 단지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소수인종, 저소득층 등의 소외된 계층들을 전치하기 위한 의도와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sup>17</sup> 특히 미국의 경우 소수인종들이 빈번하게 전치의 대상이 되면서 인종, 민족 정체성의 문제가 젠트리피케이션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sup>18</sup> 젠트리피케이션은 이전 유색인종 지역에 백인들이 들어와 이들을 몰아내는 과정이라는 의미에서 “백인성 프로젝트(whiteness project)”라 일컬어지기도 한다.<sup>19</sup>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행동주의자들은 갤러리를 더 부유한 투자자와 거주민, 방문객들을 유인하여 부동산 가치를 높이고, 결국 사회 마이너리티 계층을 지역 밖으로 내모는 젠트리피케이션의 동력으로 인식한다. 갤러리는 이러한 정치경제적 동기들을 예술의 긍정적인 이미지로 감추는 ‘예술세탁’의 주역이 되는 것이다. 갤러리들이 젠트리피케이션 저항의 공격 대상이 되는 이유는 부동산 개발업자, 정치인,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주도하고 있는 ‘예술세탁’ 젠트리피케이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sup>20</sup> 안티-젠트리피케이션 행동주의자들에게 갤러리는 이제 자본주의적 공간의 재편성을 예고하는 상징으로서 자리하게 되었다. 특히 저소득층의 낙후된 거주 지역에 갤러리들이 하

16. Stuart Cameron and Joan Coaffee, “Art, Gentrification and Regeneration: From Artist as Pioneer to Public Arts,” *European Journal of Housing Policy*, vol. 5, no. 1 (2005), pp. 39–58, p. 39.

17. Gilbert Estrada, “What’s Good for George Sánchez Is Good for Boyle Heights: Regenerative Scholarship, Urban Racism, Gentrification, and East LA Interchange,” *A Journal of Comparative and Relational Ethnic Studies*, vol. 4, no. 2 (Fall 2017), pp. 228–244, p. 232.

18. Aaron Shkuda (2016), p. 4.

19. Jaime Guzmán, “The Whiteness Project of Gentrification: The Battle over Los Angeles’ Eastside,” University of Denver, Ph.D. thesis (2018), pp. 21–22.

20. Emmanuel Hamidi (2020), p. 9.



나 돌씩 생겨나는 현상은 ‘예술세탁’ 젠트리피케이션과 전치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가 되었다. 이하에서는 가난한 노동계층 지역이자 유색인종 커뮤니티인 보일하이츠에서 갤러리를 공격 대상으로 삼았던 ‘예술세탁’ 젠트리피케이션 저항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III. 사례연구: 보일하이츠의 ‘예술세탁’ 젠트리피케이션 저항

#### 1. 저항의 배경

보일하이츠는 로스앤젤레스의 동부에 위치한다. 부와 화려함의 상징인 할리우드나 다운타운이 속한 서부와 다르게 로스앤젤레스 동부는 빈곤 지수와 도시 개발의 압력이 높고, 라틴아메리카계 미국인들과 이민자 커뮤니티의 역사와 문화가 남아 있는 곳이다. 그 중에서 보일하이츠는 인구의 90% 이상이 라틴계 통이며, 치카노(Chicano)라 불리는 멕시코계 미국인들이 대다수의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 보일하이츠는 유태인과 일본계 미국인, 라틴계 미국인 등의 다양한 이민자 커뮤니티들의 거주지였다. 1950-1960년대에는 철도 기반시설이 생기면서 산업지구로 활성화되었고, 멕시코 노동자들이 일자리에 가까운 이곳에 자리를 잡았다. 이후 유태인, 일본인 및 이전 이민자들이 점차적으로 이주하면서 멕시코계, 라틴계가 다수를 이루는 거주 구역으로서 현재의 보일하이츠를 형성하였다.<sup>21</sup>

보일하이츠는 긴 저항과 투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교육, 직업, 주거 평등을 주장하였던 멕시코계 청년 저항 운동인 ‘브라운 베렛(Brown Beret)’, 베트남 전쟁과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치카노 모라토리엄(Chicano Moratorium)’ 등의 시위가 이곳에서 일어났다. 이와 같이 1960-1970년대 ‘치카노 시민권 운동(Chicano Civil Right Movement)’의 중심이 되었던 보일하이츠의 주민들은 범죄 조직의 폭력, 마약 확산, 가난뿐만 아니라 국가 만행과 싸우며 지역을 지키는데 헌신해 왔다. 라틴 아메리카 커뮤니티에 의한 행동주의 역사는 보일하이

21. Erika Barbosa, Noni Brynjolson, “Art and Activism in Boyle Heights,” *Field*, no. 14 (Fall 2019), <http://field-journal.com/editorial/art-and-activism-in-boyle-heights> (2021년 3월 6일 접속); Kean O’Brien, Leonardo Vilchis, Corina Maritescu, “Boyle Heights and the Fight against Gentrification as State Violence,” *American Quarterly*, vol. 71, no. 2 (2019), pp. 389-396, p. 389.



츠 지역의 정치·문화적 정체성과 공동체적 결속을 다졌고, 오늘날까지 전개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저항과 적정주택(affordable house), 주택정의(housing justice)를 위한 운동의 발판이 되었다.<sup>22</sup>

보일하이츠의 주민들은 오랫동안 철거와 전치의 문제에 시달려 왔다. 1950-1960년에는 지하철 기반 공사로 인하여 1만5천 명의 거주민들이 보일하이츠에서 쫓겨났으며, 1996년에는 피코 알리소(Pico Aliso) 공영주택의 철거로 수백 명의 가족들이 강제로 이주되었다. 최근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적정주택인 위번우드(Wyvernwood)를 철거하여 고급 주택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과 예술 주도 지역 개발이 보일하이츠 주민들의 삶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sup>23</sup>

로스앤젤레스의 미술 현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브로드(Broad) 미술관의 개관에 이어 하우스 & 워스(Hauser & Wirth), 제프리 다이치(Jeffrey Deitch) 갤러리 등 뉴욕과 유럽의 딜러들이 로스앤젤레스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한 프리즈(Frieze), 펠릭스(Felix)와 같은 아트페어의 유치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의 확장이 진행되고 있는 로스앤젤레스는 뉴욕을 버금가는 현대미술의 중심이라고도 일컬어진다.<sup>24</sup> 이렇게 로스앤젤레스는 도심의 예술 성장과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예술주도 개발의 물결은 이전 산업지역인 보일하이츠까지 영향을 미쳤다.

2010년 무렵부터 보일하이츠의 비어 있는 산업 공간에 갤러리들이 하나둘씩 들어오면서 갤러리촌을 형성하기 시작하였고, 이 지역을 예술지구로 만들기 위한 정부적 개발이 추진되었다.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의 기존 예술지구와 보일하이츠의 새로운 예술지구를 연계하기 위한 사업인 ‘6번가 다리 재활성화(Sixth Street Bridge Revitalization)’ 프로젝트는 3억 6천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여

---

22, Jan Lin, *Taking Back the Boulevard: Art, Activism, and Gentrification in Los Angeles*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2019), p. 197; Carribean Fragoza, "Art and Complicity: How the Fight Against Gentrification in Boyle Heights Questions the Role of Artists" (July 2016), <https://www.kcet.org/shows/artbound/art-and-complicity-how-the-fight-against-gentrification-in-boyle-heights-questions-the-role-of-artists> (2021년 1월 20일 접속).

23, Erika Barbosa, Noni Brynjolson (2019), n.p.; Carribean Fragoza (2016), n.p.

24, Jennifer Medina, "Foes of Gentrification Target Art Galleries in Los Angeles" (Nov 5, 2016), <https://www.nytimes.com/2016/11/05/us/los-angeles-gentrification-art-galleries.html> (2021년 3월 14일 접속).

2015년부터 시작되었다.<sup>25</sup> 그리고 2015-2018년까지 15개의 갤러리 및 예술 공간이 보일하이츠와 다운타운 예술지구 경계에 있는 산업구역에 새롭게 문을 열거나, 이곳으로 이전해 왔다. 보일하이츠의 주민들은 정치인들과 부동산 투자자들의 지원과 격려 아래 문을 연 갤러리들을 젠트리피케이션과 전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로 받아들였고<sup>26</sup>, 2015년부터 갤러리를 주요 타겟으로 삼은 ‘예술세탁’ 젠트리피케이션 저항 행동이 시작되었다.<sup>27</sup>

적정주택과 주택정의를 위해 투쟁해왔던 보일하이츠의 주민들에게 젠트리피케이션은 생존의 위협이자 계층 전쟁의 문제였다. 이들은 갤러리가 지역을 부유층으로 만들고, 부동산 가치를 상승시켜 저소득 임차인과 유색인종 노동 계층을 몰아냄으로써 젠트리피케이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sup>28</sup> 주민들은 이러한 ‘예술세탁’을 가난한 소수인종 커뮤니티를 분산하고 문화를 지우기 위한 ‘문화 식민화’의 전략으로서 인식하기도 하였다. 인종, 계층, 문화, 경제적 폭력의 현실을 가리는 ‘예술세탁’에 갤러리가 큰 책임이 있다고 본 주민들은 갤러리들이 지역에서 떠나야 한다고 주장하며, 강력하게 ‘예술세탁’ 젠트리피케이션에 저항하였다.<sup>29</sup>

또한 오랫동안 국가적 방침, 인종적 차별 등과 싸우며 보일하이츠를 안전한 지역으로 바꾸고자 하였던 주민들의 투쟁의 결과가 정부 차원의 예술지구 개발과 젠트리피케이션, 전치의 과정으로 변모되면서 보일하이츠 저항의 역사와 문화를 없애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표면화되기도 하였다.<sup>30</sup> 이는 사회적 약자들이 투쟁을 통해 획득한 장소의 권리를 박탈하는 신자유주의의 ‘탈취에 의한 축적’ 과정으로서 젠트리피케이션의 면목을 보여주기도 한다. 보일하이츠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유주택의 사유화 역시 그러한 자본주의적 도시개발의 배제적

25. Kean O'Brien, Leonardo Vilchis, Corina Maritescu (2019), p. 198.

26. Emmanuel Hamidi (2020), pp. 2-3.

27. Kean O'Brien, Leonardo Vilchis, Corina Maritescu (2019), p. 390; Jan Lin (2016), p. 198.

28. Hillen Aron, "Boyle Heights Activists Demand that All Art Galleries Get the Hell Out of Their Neighborhood" (July 12, 2016), <http://www.laweekly.com/boyle-heights-activists-demand-that-all-art-galleries-get-the-hell-out-of-their-neighborhood/> (2021년 3월 22일 접속).

29. Erika Barbosa, Noni Brynjolson (2019), n.p.

30. B.H.A.A.A.D의 홈페이지, <http://alianzacontraartwashing.org/en/coalition-statements/bhaaad-the-short-history-of-a-long-struggle/> (2021년 3월 25일 접속).

인 현실을 나타내는 예이다.

## 2. 전개과정과 내용

보일하이츠의 ‘예술세탁’ 젠트리피케이션 저항에는 지역주민들과 로스앤젤레스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예술·문화 활동가들, 교육자들이 연대한 다양한 저항 단체들이 참여하였다. 저항 운동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은 ‘예술세탁’과 전치에 저항하는 보일하이츠 연대(이하 B.H.A.A.A.D)였다. B.H.A.A.A.D는 ‘보일하이츠를 지키자(Defend Boyle Heights)’, ‘이웃 동맹(Union de Vecinos)’, ‘로스앤젤레스 세입자 동맹(Los Angeles Tenants Union)’, ‘메아리 스쿨(School of Echoes)’과 로스앤젤레스 예술가 커뮤니티 행동주의 그룹의 결속으로 형성되었다.<sup>31</sup>

B.H.A.A.A.D의 조직에는 예술 컬렉티브(collective) 울트라-레드(Ultra-red)를 중심으로 다수의 예술가들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젠트리피케이션의 촉매제로서 예술의 역할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로, 예술이 부동산 개발과 젠트리피케이션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현실을 바꾸고자 하였다. B.H.A.A.A.D는 로스앤젤레스의 도시개발에 있어 예술과 부동산 산업 간의 공모관계에 저항하기 위해 비판적인 사회 운동과 예술적 연대를 재정립하는 것을 집합 행동의 목적으로 삼았다. 나아가 B.H.A.A.A.D는 ‘젠트리피케이션은 막을 수 없다’라는 서사에 대항하려 하였다. 그 일환으로 개발업자, 정치경제적 권력과 예술 간의 협업의 네트워크를 밝힘으로써 젠트리피케이션은 구축된 것이며, 따라서 집합적인 저항 행동으로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sup>32</sup>

B.H.A.A.A.D는 보일하이츠의 젠트리피케이션을 가속화하는 데 갤러리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고, 갤러리들의 퇴출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시위

31. 2015년에 결성된 보일하이츠를 지키자(Defend Boyle Heights)는 자본주의에 대한 혁명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회주의 단체이다. 이웃동맹(Union de Vecinos)는 1996년 피코 알리소(Pico Aliso) 공영주택 철거를 배경으로 형성되어 세입자의 권리와 주택정의에 초점을 둔 거주민 중심의 단체이다. 메아리 스쿨(School of Echoes)은 2012년 노동계층, 저소득층의 젠트리피케이션 투쟁과 거주민의 권리를 위해 모인 L.A. 중심의 교육, 문화 활동가로 구성되었다. 로스앤젤레스 세입자 동맹(L.A. Tenants Union)은 불공정한 개발과 퇴출, 임대 정책의 문제점에 대항하기 위해 2015년 로스앤젤레스 전역의 세입자와 거주민들이 함께 모인 집단이다. 이에 대해서는 Jaime Guzmán (2018), pp. 105-106와 B.H.A.A.A.D의 홈페이지(<http://alianzacontraartwashing.org/en/bhaaad/>) 내용을 참조할 것.

32. Kean O'Brien, Leonardo Vilchis, Corina Maritescu (2019), p. 396.

를 전개하였다. 2015년 가을, 보일하이츠 예술지구의 관문에 해당되는 사우스 앤더슨 가(South Anderson Street)의 U.T.A Artist Space를 포함한 10개의 갤러리 대상의 반대 시위를 시작으로 3년간의 ‘예술세탁’ 저항 행동이 지속되었다.

저항가들은 “젠트리피케이션은 계층 전쟁이다(Gentrification is Class Warfare)”와 같은 슬로건이 적힌 배너를 들고, “사람은 예스, 젠트리피케이션은 노(Gente Si, Gentrify No!)”라고 쓰인 티셔츠를 입은 채 거리 시위에 나섰다. 저항의 방법으로는 안티-젠트리피케이션 배너뿐만 아니라 포스터, 광고, 교통 사인, 그래피티 등의 복합 매체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거리 시위, 보이콧(boycott), 피켓 라인(picket line), 갤러리 점거 및 소셜 미디어를 통한 다양한 형태의 저항 행동이 동원되었다.<sup>33</sup> B.H.A.A.A.D는 저항의 맥락과 선언문, 행위의 결과에 대한 정보를 웹사이트에서 공개하였는데, 여기에는 미디어를 통해 자신들의 ‘예술세탁’ 젠트리피케이션 저항 운동을 지역적, 세계적으로 유포하려는 의도가 있었다.<sup>34</sup>

행동주의자들의 공격적이고 강경한 전술은 언론의 이목을 끌었다. 그 중 하나가 2016년 가을, 니코덤 갤러리 정문에 ‘백인 예술(white art)’이라는 단어를 포함한 욕설을 갤러리 정문에 스프레이로 표시한 반달리즘 행위이다(도판 1).<sup>35</sup> 이것은 백인 소유의 갤러리들이 유색 노동계층 주민들의 전치에 공모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감의 표현이었다. 또한 행동주의자들은 갤러리들의 입구에 ‘강제퇴거(eviction)’ 경고를 붙이고, 오프닝 등의 행사를 방해하였다. 이 과정에서 젠트리피케이션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는 갤러리들 주변을 돌며 스페인어로 “퇴출(Fuera, Out)”이라고 외쳤으며, 유리창에 물건을 던지는 과격한 행위를 가하기도 하였다.<sup>36</sup>

보일하이츠의 안티-젠트리피케이션 행동주의 전략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로 “협상 거부(No Compromise)”를 들 수 있다. 이들은 갤러리 관계자들 또는

33. Jan Lin (2019), p. 200; Gilbert Estrada (2017), p. 236.

34. Kean O'Brien, Leonardo Vilchis, Corina Maritescu (2019), p. 395.

35. Jan Lin (2019), p. 198; Gilbert Estrada (2017), p. 237. 이 사건은 중오 범죄로 로스앤젤레스 경찰국(LAPD)의 수사를 받았지만, 반달리즘이 지역 행동주의자들이 아니라 외부인의 소행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저항 행동주의자들은 이 사건이 중오범죄라는 사실에 반박하면서 하나의 정치적 발언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36. Gilbert Estrada (2017), p. 237; Jaime Guzmán (2018), pp. 115–117.



도판 1. 니코덤 갤러리 정문 그래피티와 시위대, 2016.

관련 예술가들과 대화나 협상을 완강하게 거절하였다. 이는 젠트리피케이션을 주도한 개발업자, 정부 혹은 자본주의 구조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저항운동의 사회적 의제와 사상이 외부에 동요되거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강한 의지의 표명이었다.<sup>37</sup> 이러한 강경하고 쟁투적인 전략은 과거 보일하이츠의 에코 공원(Eco Park)과 하이랜드 공원(Highland Park)의 젠트리피케이션 저항 과정에서 과격하지 못한 행동으로 결국 이 곳의 젠트리피케이션화를 막지 못하였다는 판단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sup>38</sup>

B.H.A.A.D가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던 예술 공간 중에 논쟁의 중심이었던 곳이 비영리 공간인 PSSST와 셀프-헬프 그래픽스 & 아트(Self-Help Graphics & Art)이다. 2016년 6월, 보일하이츠에 자리 잡은 PSSST는 잘 알려지지 않은 퀴어/페미니스트, 여성, 유색인종 예술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이다.<sup>39</sup> 급진적인 예술 공간으로 다양성과 포용성에 초점을 두었던 PSSST도 젠트리피케이션 저항 행동주의의 공격은 피해가지 못하였다. 행동주의자들이 PSSST를 공격한 이유는 2014년에 익명의 투자자가 100만 달러 이상을 주고 이전 공장이었던 PSSST의 건물을 매입, 개조한 후 20년간 임대료 없이 공간을 운영하도록 지원했던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방치된 이 건물을 예술 공간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재투자한 것이 부동산을 상승시켜, 결과적으로 주변 거주지역의 주택 가격과 임대료를 높일 것이라는 비난이 일었다. 즉, 부동산과 예술 간의 관계

37. Erika Barbosa, Noni Brynjolson (2019), n.p.

38. Jan Lin (2019), p. 199; Brittany Mejia, Steve Saldívar, "Boyle Heights Activists Blame the Art Galleries for Gentrification," *Los Angeles Times* (August 4, 2016).

39. Janelle Zara, "PSSST Offers an Alternative to the Art World Status Quo" (July 2016), Cultured 홈페이지, [www.culturedmag.com/pssst-art-gallery/](http://www.culturedmag.com/pssst-art-gallery/). (2021년 3월 27일 접속).



도판 2. PSSST 앞 시위 장면, 2016.

가 쟁점이 되었다.<sup>40</sup> 또한 PSSST의 대표가 부동산 중개업자라는 사실과 하이랜드 공원과 프로그타운(Frogtown)의 젠트리피케이션에 책임이 있는 부동산 투자자 베라 캠벨(Vera Campbell)과 관련성이 문제로 제기되었다.<sup>41</sup>

저항 단체들은 다수의 저소득층 가구들이 퇴출되었던 장소 근처에 문을

연 PSSST가 젠트리피케이션의 폭력에 저항해 온 투쟁의 장소성과 역사를 간과하였음을 비난하였다. 또한 PSSST가 추구하는 “다양성”, “포용성”, “지역커뮤니티를 위한 봉사”라는 사회적 의제와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력 간의 모순이 논란이 되었다. 즉, 소수자의 성적 정체성, 급진성과 포용성을 지향하는 이 공간이 역으로 소수인종과 가난한 노동계층의 전치에 관여해 왔던 것이다.<sup>42</sup>

행동주의자들은 PSSST의 폐업을 목표로 시위와 직접 행동을 계속해 갔다. 시위의 일환으로 PSSST의 입구에서 오프닝 등의 행사를 방해하고, 행사 지원을 자축하기 위한 구획 파티(block party)를 열었다. 갤러리 건물 외벽에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위협과 보일하이츠 지역 주민들의 저항에 관한 이미지와 자료들을 투사하였고, 이러한 시위 방식을 새로운 전시 오프닝마다 이어 나갔다(도판 2).<sup>43</sup> 결국 PSSST는 웹사이트를 통해 보일하이츠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술과 젠트리피케이션에 관한 장기간의 논란과 연속적인 공격을 이유로 언급하며 폐업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였다.<sup>44</sup> 이에 대해 B.H.A.A.D는 “이 소식은 공영주택 사유화에 투쟁해 왔던 피코가든(Pico Garden)의 296개의 가구뿐만 아니라 전치와 임대료의 상승에 저항하여 싸워 온 보일하이츠의 세입자들의 승리를 의미한다.”라고 반응하였다.<sup>45</sup>

40. Hillen Aron (2016), n.p.

41. B.H.A.A.D의 홈페이지, <http://alianzacontraartwashing.org/> (2021년 3월 27일 접속).

42. Kean O'Brien, Leonardo Vilchis, Corina Maritescu (2019), p. 391.

43. 앞 책, 같은 쪽.

44. Matt Stromberg, “Boyle Heights Art Space Closes, Blaming Anti-Gentrification Activists” (February 2017), <https://hyperallergic.com/360174/boyle-heights-art-space-closes-blaming-anti-gentrification-activists/> (2021년 3월 28일 접속).

45. 앞 글, n.p.



PSSST와 함께 문제가 되었던 곳이 비영리 공간이었던 셀프-헬프 그래픽스 & 아트이다. 셀프-헬프 그래픽스 & 아트는 지난 40년간 로스앤젤레스 동부의 커뮤니티와 지역 작가들을 위한 예술 공간의 역할을 해오면서 전시뿐만 아니라 프린트 스튜디오, 예술가 레지던스와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1973년에 창립된 이곳은 치카노 예술과 문화뿐만 아니라 저항 행동과 관련된 뿌리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연례 라틴 페스티벌과 행사들을 주관 하면서 라틴 아메리카 정체성의 상징적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다.<sup>46</sup>

보일하이츠 커뮤니티를 위한 오랜 예술 공간이었던 셀프-헬프 그래픽스 & 아트 역시 ‘예술세탁’의 공격 대상이 되었다. 저항단체인 ‘보일하이츠를 지키자’는 이 공간이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운영 기금을 받고 있으며, 보일하이츠 지역에 부동산 자산을 다수 보유한 투자자들이 이사진(board member)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공격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특히 셀프-헬프 그래픽스 & 아트가 지역 커뮤니티와의 오랜 연대 관계를 유지하며, 부동산 투기와 자본 축적을 위한 ‘예술세탁’에 참여하는 현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점이 공격의 결정적 이유였다. 저항자들은 커뮤니티와 긴밀한 연대가 ‘예술세탁’을 은밀하게 감추는 수단으로서 이용된 것에 격분하였다.<sup>47</sup>

이렇게 영리적인 갤러리뿐만 아니라 커뮤니티를 위한 비영리 공간까지 보일하이츠 ‘예술세탁’의 공격 대상이 되었다. 그 원인은 지난 20년간 비영리 기관, 공공 기관, 나아가 민간과 공공의 협업한 투자로 인하여 보일하이츠의 2천여 개 세대와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직장과 집을 잃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커뮤니티 문화와 정체성의 산실이었던 셀프-헬프 그래픽스 & 아트를 공격한 것에는 보일하이츠의 미래를 위한 ‘더 나은 삶(a better life)’을 약속함으로써 공영주택 철거를 정당화하고, 지역주민들을 회유하였던 정부 및 비영리 기관들에 대한 배신감이 크게 작용하였다.<sup>48</sup>

---

46. Gilbert Estrada (2017), p. 238.

47. “A Community Betrayed: How Self-Help Graphics & Art Actively Supports Gentrification,” <http://defendboyleheights.blogspot.com/2018/10/a-community-betrayed-how-self-help.html> (2021년 3월 29일 접속).

48. B.H.A.A.A.D, “The Short History of a Long Struggle,” <http://alianzacontraartwashing.org/en/coalition-statements/bhaaad-the-short-history-of-a-long-struggle/> (2021년 4월 12일 접속).



‘예술세탁’을 향한 공격 대상이 비영리 공간이자 커뮤니티와 투쟁의 역사를 함께 해왔던 예술 공간으로 확장되면서 보일하이츠의 젠트리피케이션 저항은 ‘누가 젠트리피케이션에 어떠한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는가’를 둘러싼 논의를 촉발하였다.<sup>49</sup> 개발업자, 정치경제 권력, 예술가, 상업 갤러리들로 국한되었던 젠트리피케이션 행위자의 범위와 역할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이 사례는 그 외의 다양한 쟁점들을 남기면서 젠트리피케이션 논의에 있어 새로운 국면을 열고 있다.

#### IV. 보일하이츠 저항 행동주의의 쟁점과 함의

2015년부터 3년 넘게 지속되어 온 보일하이츠의 저항운동은 니코덤 갤러리, PSSST를 포함한 5개 이상의 갤러리와 비영리 공간이 문을 닫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결과를 낳았다. 보일하이츠에서 일어났던 ‘예술세탁’ 젠트리피케이션 저항은 급진적이고 강경한 전략으로 언론과 학계의 주목을 받으며 행동주의, 예술, 그리고 도시와 사회를 둘러싼 다음과 같은 여러 논쟁점과 과제를 남기기도 하였다. 보일하이츠의 ‘예술세탁’ 저항 행동주의는 젠트리피케이션과 관련하여 어떤 영향력과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한계점은 무엇인가? 행동주의 미술의 맥락에서 이 사례는 어떤 한계와 가능성을 보여주는가? ‘예술세탁’과 갤러리에 대한 저항이 예술에 제시하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예술이 불균등한 도시 공간의 생산에 개입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어떤 예술 실천과 공간을 필요로 하는가? ‘예술세탁’ 젠트리피케이션과 공모 관계를 피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나아가 우리는 젠트리피케이션과 어떤 연관을 맺고 있으며, 이에 어떤 책임이 있는가?

본 연구는 이 장에서 보일하이츠의 ‘예술세탁’ 젠트리피케이션 저항이 남긴 위의 물음들에 대하여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먼저 젠트리피케이션 저항 행동주의의 성과와 영향력에 대해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려 한다.

##### 1. 저항의 성과와 한계

몇 개의 갤러리들이 문을 닫고 지역에서 떠남으로써 보일하이츠의 저항 행동

49. Carribeau Fragoza (2016), n.p.

주의는 ‘갤러리의 퇴출’이라는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공격적인 전술로 이목을 끌면서 예술과 젠트리피케이션을 둘러싼 논의를 활성화하고, 젠트리피케이션의 속도를 늦추는 일에도 성공하였다.<sup>50</sup> 또한 젠트리피케이션의 적극적 행위자로서 부동산 개발업자, 정치권력, 그리고 예술 간의 교묘한 공모의 네트워크를 밝히고 ‘예술세탁’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에도 기여하였다. 무엇보다 ‘예술세탁’이라는 용어는 보일하이츠의 젠트리피케이션 저항을 통해 많이 알려지고 사용되어 젠트리피케이션의 새로운 주제어로 떠올랐다. 그 결과 ‘예술세탁’은 젠트리피케이션에 있어 예술의 역할에 관한 다양한 논의와 연구를 이끌고 있다.

보일하이츠의 젠트리피케이션 저항이 남긴 또 다른 유산은 도시 정책과 계획 분야에서 젠트리피케이션과 전치의 문제에 대해 다시 주목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보일하이츠의 저항 행동은 정부 정책을 통한 공간의 지배적 질서에 도전하는 ‘게릴라 어버니즘(guerrilla urbanism)’의 사례로서 거론되면서, 경제적·인종적 약자들의 도시 공간에 대한 요구를 도시계획 속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의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즉, 정부적 제도에 의한 공간 구성이 인종적, 경제적 배제성을 드러내면서 도시 공간의 구성과 정책을 재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서 지역의 풀뿌리 행동주의와 관계 속에서 주택 권리의 쟁점을 고려한 새로운 공간적 질서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점이 언급되기도 하였다.<sup>51</sup>

젠트리피케이션과 예술 나아가 도시계획과 정책, 사회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이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를 촉발하였다는 것은 보일하이츠 젠트리피케이션 저항의 남긴 가장 큰 성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에리카 바르보사(Erika Barbosa)와 노니 브린졸슨(Noni Brynjolson)은 2017년 잡지 『필드(Field)』를 통해 보일하이츠의 저항을 명확한 결과를 성취한 행동주의로서 평가하였다. 이들은 이 저항 행동이 향후 보일하이츠의 젠트리피케이션을 중단하는 데 승리한다면, 안티-젠트리피케이션의 미래를 보여주는 청사진으로서의 가능

50. Jaime Guzmán (2018), p. 120.

51. Jonathan Crisman, Annette Kim, “Property Outlaws in the Southland: The Potential and Limits of Guerrilla Urbanism in the Cases of Arts Gentrification in Boyle Heights and Street Vending Decriminalization in Los Angeles,” *Urban Design International*, vol. 24, no. 3 (2019), pp. 159–170, p. 160.

성을 점쳐보기도 하였다.<sup>52</sup> 실제적으로 B.H.A.A.A.D의 행동주의는 보일하이츠를 넘어서 ‘예술세탁’에 저항하는 또 다른 커뮤니티와 예술가들의 연대에 영감을 주기도 하였다.<sup>53</sup>

그러나 보일하이츠의 행동주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는 결과로 이어지는 못하였다. 공격의 대상을 갤러리에 집중하면서 정작 더 힘 있는 부동산 소유자, 개발업자, 정치인들에게 저항하지 못하였다. 다시 말해 이 저항 행동은 젠트리피케이션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는 실패하였다고 볼 수 있다.<sup>54</sup> 갤러리를 목표로 삼은 공격이 갤러리와 협업한 정치경제 권력에게 간접적인 압박을 주거나, 예술의 도구적 이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을 수도 있다. 그리고 갤러리들의 폐업이 안티-젠트리피케이션 투쟁에 새로운 전환의 계기가 되었을 수 있으나, 보다 큰 ‘도시개발’과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쟁점은 해결하지 못한 채 남겨졌다.<sup>55</sup>

따라서 보일하이츠 저항 행동은 전술의 과격함에 비하여 적극적인 저항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하여, 배후의 큰 정치경제적 동기까지 막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보일하이츠의 부동산은 개발업자들에게 여전히 매매되고 있으며, 시의 지도자들은 이 지역의 개발을 돕고 있다.<sup>56</sup> 즉, 보일하이츠의 젠트리피케이션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다.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의 예술지구와 보일하이츠의 새로운 예술지구를 연계하기 위한 ‘6번가 다리의 건설’은 예정된 계획보다 지연되었으나, 2022년을 목표로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보일하이츠 젠트리피케이션 저항의 문제점으로 미래의 보일하이츠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부재했다는 측면이 거론된다. 갤러리들을 퇴출한 이후 저항 행동의 단계와 목표는 무엇인지, 나아가 젠트리피케이션을 막는 데 성공할 경우와 그렇지 않을 때에 어떤 전략의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지, 이와 관련하여

52. Erika Barbosa, Noni Brynjolson, (2017), n.p.

53. Kean O'Brien, Leonardo Vilchis, Corina Maritescu (2019), p. 395.

54. Jonathan Crisman, Annette Kim (2019), p. 119.

55. Carolina A Miranda, "Resistance movement: Galleries Leaving Boyle Heights, but Gentrification Fight Isn't Over," *Los Angeles Times* (August 14, 2018).

56. Jaime Guzmán, (2018), pp. 119-120.

보일하이츠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다. 즉, 저항 행동의 한계는 보일하이츠의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비전”의 결여에 있다고 볼 수 있다.<sup>57</sup> 그 원인으로 급진적인 저항 집단과 온건한 조직 간의 저항 목적과 전략에 대한 의견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일하이츠를 지키자’와 같은 급진적인 그룹들은 자본주의 시스템을 공격하는데 저항의 목적을 두었다. 반면 다소 온건한 커뮤니티 조직은 주택, 건강, 교육과 직업 개발 등 지역의 시급한 물질적인 요구의 해소에 집중하였다.<sup>58</sup> 이렇게 두 집단 간의 지향점의 차이는 미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세우는 데 불리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양한 배경의 개인 혹은 집단이 행동주의를 위해 연대할 경우에 서로 다른 이해와 목표의 격차를 어떻게 좁혀 갈 것인지가 향후 과제로서 파악된다.

## 2. 예술, 사회와 정치적 함의

다음으로 행동주의 미술의 측면에서 보일하이츠의 사례는 어떠한 가능성과 한계를 보여주는지 살펴보자. 보일하이츠의 급진적인 저항 그룹의 리더와 일원 중에는 많은 예술가들이 포함되어 있었다.<sup>59</sup> 그 중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던 것이 울트라-레드이다. 1994년 에이즈 행동주의를 위해 형성된 이후 울트라-레드는 주택정의, 이주, 반인종주의, 젠더와 성권리 등을 위한 사회운동에 참여해왔다.<sup>60</sup>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예술가들이 함께 모인 이 그룹은 지역사회와의 연대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보일하이츠의 메아리 스쿨과 같은 커뮤니티 기반 조직의 결성과 협업 관계의 형성에 큰 기여를 하였다.

울트라-레드는 젠트리피케이션 저항을 위한 예술적 실천은 사회적 연대와 결속을 다지며, 사회 관계들을 형성하고 새롭게 조직하는 전환(transformation)의 미학에 토대한다고 주장한다.<sup>61</sup> 저항 행동을 위한 사회적 관계의 전환을 예

57. Jonathan Crisman, Annette Kim (2019), p. 168.

58. 앞 글, p. 167.

59. 앞 글, p. 168.

60. TATE 홈페이지, <https://www.tate.org.uk/intermediaart/entry15414.shtm> (2021년 3월 27일 접속).

61. Ultra Red, “Desarmando Desarrollismo: Listening to Anti-Gentrification in Boyle Heights,” *Field* (January 2021), <http://field-journal.com/issue-14/desarmando-desarrollismo> (2021년 3월 29일 접속).

술적 실천으로 삼고 있는 울트라-레드는 ‘저항의 예술’을 지향한다.<sup>62</sup> 울트라-레드는 기존 젠트리피케이션 저항 행동주의 미술에서 나타나는 예술 형식의 동원이나 전유를 뛰어넘어 새로운 주체들의 관계 형성이라는 정치 실천 자체를 예술 실천으로 삼고 있다. 즉 이들은 정치와 예술 간의 경계를 허무는 실험으로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sup>63</sup> 나아가 이들은 창조적 도시개발, ‘탈취에 의한 축적’의 도구가 아니라 이에 저항하고 거부하면서 일상을 전환하는 비판적 예술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프리티어드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위협으로부터 지역 커뮤니티와 문화를 지키는 예술가의 역할을 “장소 수호자(place-guarding)”라고 규정하였다.<sup>64</sup> 울트라-레드의 행동주의는 이러한 ‘장소 수호하기’의 예술 실천을 제시하는 예로서도 의미가 있다. 이로써 울트라-레드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선두자, 공모자로서 예술가의 역할을 전복하려 하였으며 사회적 책임과 정의, 윤리의 문제를 예술의 지형으로 끌어들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던 커뮤니티의 요구와 필요, 그리고 급진적인 예술 실천의 목표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가 이들에게 놓여 있다. 이러한 과제는 보일하이츠를 넘어 커뮤니티에 개입함으로써 젠트리피케이션 저항에 참여하는 예술가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이기도 할 것이다.

나아가 보일하이츠 저항은 행동주의 미술, 예술 공간 및 기관을 비롯한 예술 전반에 있어 사회적 책임에 관한 물음과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예술이 ‘예술세탁’에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현실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의 공모를 피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예술 공간과 기관, 예술 실천이 필요한가? 보일하이츠의 ‘예술세탁’과 예술 공간에 대한 공격은 예술의 ‘자율성’에 타격을 가하고 있다. 예술이 사회를 떠나 존재할 수 없듯이, 예술 공간은 정치경제적 맥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예술 공간 혹은 기관은 지역의 역사, 정치, 경제적 맥

62. Carribbean Fragoza (2016), n.p.

63. 강지선, 「예술가 주도 젠트리피케이션의 신화: 젠트리피케이션의 개척자로서 예술가 역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예술과 미디어』, 20권 1호 (2021), pp. 11-38, p. 29의 내용 참조.

64. Stephen Pritchard, “Place Guarding: Activist Art against Gentrification,” Cara Courage, Anit McKeown (eds), *Creative Placemaking: Research,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2018), pp. 147-148; 강지선 (2021), p. 29.

략성 속에서 커뮤니티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PSSST와 셀프-헬프 그래픽스 & 아트에 대한 공격은 커뮤니티 참여형 공간의 역할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사례이다. 이는 예술 공간이 추구하는 사회적인 목표가 아니라 커뮤니티와 관계성 속 현재와 미래의 삶에 대한 영향력과 혜택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sup>65</sup>

PSSST, 셀프-헬프 그래픽스 & 아트의 예와 같이 커뮤니티 참여, 사회 포용 등과 같은 사회적 의제를 추구하는 예술 공간은 커뮤니티 회유를 명목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을 위장하는 '예술세탁'에 이용되기 쉽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PSSST가 후원의 문제, 이사진의 구성 등에서 부동산 개발업자와의 관계성이 불거졌던 것처럼, 공간 운영을 위한 후원과 인적 구성의 윤리성 문제에 대해서도 재고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보일하이츠의 사례는 다양한 형태의 예술 실천과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에게 여러 쟁점과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도적이든 혹은 의도적이지 않은 젠트리피케이션과 연관될 많은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젠트리피케이션이 진행되는 지역에 스튜디오, 갤러리 등을 임대하거나 소유하지는 않은지, 또는 젠트리피케이션에 관여하는 예술 공간과 함께 일을 하거나, '예술세탁'을 위한 지역의 문화개발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은지?<sup>66</sup> 이 사례는 예술 공간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예술 활동에 있어서 지역의 역사, 사회, 경제적 맥락성과 영향력에 대해 고려해 보아야 한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다.

예술이 불균등한 도시개발과 사회적 불평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젠트리피케이션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으며, 이에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피터 마르쿠제(Peter Marcuse)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하여 인간의 거주와 권리에, 사회정의와 윤리의 문제로서 접근하려 하였다.<sup>67</sup> 예술이 이익 창출을 위한 자본주의 도시화와 인종, 계층적 배

65. Carribeian Fragoza (2016), n.p.

66. Kean O'Brien, Leonardo Vilchis, Corina Maritescu (2019), p. 394.

67. Peter Marcuse, "Gentrification, Social Justice and Personal Ethics,"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vol. 39, no. 6 (November 2015), pp. 1263-1269, p. 1263.

제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창작, 비평 나아가 전시 기획 등의 예술 활동이 다른 사람의 삶을 위협하는 데 개입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보일하이츠의 ‘예술세탁’ 젠트리피케이션 저항은 젠트리피케이션화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오늘날 예술과 사회적 책임을 둘러싼 무거운 물음들을 던지고 있다.

## V. 나가며

지금까지 본 논문은 갤러리를 대상으로 한 공격적인 저항 행동으로 주목받았던 보일하이츠의 안티-젠트리피케이션 행동주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예술세탁’의 맥락에서 갤러리를 향한 적대의 원인을 분석한 이후, 젠트리피케이션 저항 행동의 영향력과 한계 및 가능성을 예술, 젠트리피케이션, 도시 공간의 쟁점들과 더불어 논의해 보았다. 이는 최종적으로 보일하이츠의 ‘예술세탁’ 젠트리피케이션 저항의 예술, 정치, 사회적 함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다.

요약하자면 예술을 이용하여 자본주의적 동기를 위장하는 의미에서 출발한 ‘예술세탁’은 젠트리피케이션 저항 행동주의의 맥락에서 주목하는 주제어가 되고 있다. 갤러리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새로운 계층의 유입 등 지역의 경제, 계층, 문화를 전환시킴으로써 젠트리피케이션을 예고하는 상징적인 존재로서 간주된다. 이러한 갤러리는 정치경제 권력이 주도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수단으로 ‘예술세탁’에 동참하여 안티-젠트리피케이션 행동주의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보일하이츠의 예에서 갤러리들은 인종, 계층과 관련된 젠트리피케이션과 전치의 문제를 위장하는 ‘예술세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보일하이츠의 ‘예술세탁’ 젠트리피케이션 저항은 목표로 하였던 갤러리들의 퇴출에는 어느 정도 성공하였다. 그러나 경제정치 구조의 공격까지 나아가지 못하여 최종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을 막는 것은 실패하였다. 지역의 미래를 위한 구체적 비전의 부재와 젠트리피케이션 저항을 위한 단계별, 장기적인 계획의 결여, 급진적인 행동주의 그룹과 온건한 커뮤니티 조직 간의 전술과 목표의 차이를 그 원인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반면 보일하이츠의 저항 행동은 공격적인 전술로 언론과 학계의 이목을 끌면서, 젠트리피케이션과 예술, 도시 공간과 사회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촉발하



였다. 또한 이들은 ‘젠트리피케이션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회적인 통념에 도전하며, 젠트리피케이션의 선두자로서 예술가의 이미지를 전복하는 ‘저항의 예술’을 지향한다. B.H.A.A.A.D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울트라-레드는 사회 관계의 조직과 정체성화라는 정치적 실천을 예술과 동일시함으로써 이전 젠트리피케이션 저항 행동주의 미술과의 차별성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울트라-레드는 젠트리피케이션의 맥락에서 주택정의를 위해 소수자들과 연대하여 지역을 지키는 ‘장소 수호자’로서 예술가의 역할을 제시한다.

무엇보다 보일하이츠의 저항이 남긴 유산은 예술, 젠트리피케이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물음들이다. ‘예술세탁’의 대상이 상업 갤러리뿐만 아니라 비영리, 커뮤니티 예술 공간까지 확대되면서, 이 사례는 예술 전반에 있어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젠트리피케이션에 연관되어 있는가라는 의문을 던지고 있다. 예술의 자율성에 경종을 울리는 이 사건은 예술 실천과 예술 공간이 지역의 역사, 사회, 경제, 정치적 상황과 현재와 미래의 커뮤니티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본 논문은 젠트리피케이션 담론에서 주목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소개되지 않은 ‘예술세탁’의 개념과 보일하이츠의 저항 사례를 고찰함으로써, 젠트리피케이션에 있어 예술의 사회적 역할에 관한 재고의 필요성을 역설하기 위한 연구이다. 동시대 예술과 젠트리피케이션 간의 긴밀하고 문제적인 협업 관계를 노출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예술세탁’에 연루될 수 있는 위험성을 알리고자 하였다. 무엇보다도 이 논문의 목적은 예술이 신자유주의 공간 생산을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오늘날, 다양한 형태로 예술과 연관을 맺고 있는 우리에게 비판적 성찰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데 있다.

## ■ 주제어(Keywords)

예술세탁(Artwashing), 갤러리(Gallery),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저항(Resistance), 보일하이츠(Boyle Heights), 행동주의 미술(Art Activism)

투고일	2021년 4월 25일	심사일	2021년 5월 23일	게재확정일	2021년 5월 26일
-----	--------------	-----	--------------	-------	--------------

## 참고문헌

- 강지선, 「예술가 주도 젠트리피케이션의 신화: 젠트리피케이션의 개척자로서 예술가 역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예술과 미디어』, 20권 1호 (2021), pp. 11-38.
- 데이비드 하비, 『세계를 보는 눈』, 최병두 (역), 파주: 창비, 2017.
- Cameron, Stuart, Jon Coaffee. "Art, Gentrification and Regeneration- From Artist as Pioneer to Public Arts," *European Journal of Housing Policy*, vol. 5, no. 1 (2005), pp. 39-58 (DOI: 10.1080/14616710500055687).
- Crisman, Jonathan, Annette Kim. "Property outlaws in the Southland: The Potential and Limits of Guerrilla Urbanism in the Cases of Arts Gentrification in Boyle Heights and Street Vending Decriminalization in Los Angeles," *Urban Design International*, vol. 24, no. 3 (2019), pp. 159-170 (DOI: 10.1057/s41289-019-00086-6).
- Estrada, Gilbert. "What's Good for George Sánchez Is Good for Boyle Heights: Regenerative Scholarship, Urban Racism, Gentrification, and East LA Interchange," *A Journal of Comparative and Relational Ethnic Studies*, vol. 4, no. 2 (2017), pp. 228-244 (DOI: doi.org/10.15367/kf.v4i2.163).
- Evans, Mel. *Artwash: Big Oil and the Arts*, London: Pluto Press, 2015.
- Guzmán, Jaime. "The Whiteness Project of Gentrification: The Battle over Los Angeles' Eastside," University of Denver, Ph. D. thesis, 2018.
- Hamidi, Emmanuel. "Visualizing Narratives of Art as Gentrification in the "Artwashing" of Boyle Heights," *Berkeley Undergraduate Journal*, vol. 34, no. 1 (2010).
- Kelly, Sinéad. "Taking Liberties: Gentrification as Neoliberal Urban Policy in Dublin," Andrew MacLaran, Sinéad Kelly (eds), *Neoliberal Urban Policy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City*, Hampshire: Palgrave Macmillan, 2014.
- Lin, Jan, *Taking Back the Boulevard: Art, Activism, and Gentrification in Los Angeles*,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2019.
- Mathews, Vanessa. "Aestheticizing Space: Art, Gentrification and the City," *Geography Compass*, vol. 6, no. 6 (2010), pp. 660-675 (DOI: 10.1111/j.1749-8198.2010.00331.x).
- Marcuse, Peter. "Gentrification, Social Justice and Personal Ethics,"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vol. 39, no. 6 (2015), pp. 1263-1269 (DOI: 10.1111/1468-2427.12319).

- Markusen, Ann. “Creative Cities: A 10-Year Research Agenda,” *Journal of Urban Affairs*, vol. 36, no. 2 (2014), pp. 567–589 (DOI: 10.1111/juaf.12146).
- Miranda, Carolina A. “Resistance Movement; Galleries Leaving Boyle Heights, but Gentrification Fight Isn't Over,” *Los Angeles Times* (August 14, 2018).
- O'Brien, Kean, Leonardo Vilchis, Corina Maritescu. “Boyle Heights and the Fight against Gentrification as State Violence,” *American Quarterly*, vol. 71, no. 2 (2019), pp. 389–396 (DOI: 10.1353/aq.2019.0033).
- Pritchard, Stephen. “Place Guarding: Activist Art against Gentrification,” Cara Courage, Anit McKeown (eds), *Creative Placemaking: Research,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2018.
- \_\_\_\_\_. “The Artwashing of Gentrification and Social Cleansing,” Peter Adey, Janet Bowstead et. al. (eds), *The Hand Book of Displacement*, Hampshire: Palgrave Macmillan, 2020.
- Shkuda, Aaron. “The Art Market, Arts Funding, and Sweat Equity: The Origins of Gentrified Retail,” *Journal of Urban History*, vol. 39, no. 4 (2013), pp. 601–619 (DOI: 10.1177/0096144212443134).
- \_\_\_\_\_. *The Lofts of SoHo: Gentrification, Art, and Industry in New York, 1950–1980*,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6.
- Aron, Hillen. “Boyle Heights Activists Demand that All Art Galleries Get the Hell Out of Their Neighborhood” (July 12, 2016), <http://www.laweekly.com/boyle-heights-activists-demand-that-all-art-galleries-get-the-hell-out-of-their-neighborhood/> (2021년 3월 22일 접속).
- Barbosa, Erika, Noni Brynjolson. “Art and Activism in Boyle Heights,” *Field*, no. 14 (Fall 2019), <http://field-journal.com/editorial/art-and-activism-in-boyle-heights> (2021년 3월 6일 접속).
- B.H.A.A.A.D의 홈페이지, <http://alianzacontraartwashing.org/en/coalition-statements/bhaaad-the-short-history-of-a-long-struggle/> (2021년 3월 25일 접속).
- Defend Boyle Heights 블로그, “A Community Betrayed: How Self-Help Graphics & Art Actively Supports Gentrification,” <http://defendboyleheights.blogspot.com/2018/10/a-community-hbetrayed-how-self-help.html> (2021년 1월 12일 접속).
- Fragoza, Carribbean. “Art and complicity: Art and Complicity: How the Fight Against Gentrification in Boyle Heights Questions the Role of Artist” (July 2016), <https://www.kcet.org/shows/artbound/art-and-complicity-how-the-fight-against-gentrification-in-boyle-heights-questions-the-role-of-artists> (2021년 1월 20일 접속).
- Medina, Jennifer. “Foes of Gentrification Target Art Galleries in Los Angeles” (November 5, 2016), <https://www.nytimes.com/2016/11/05/us/los-angeles-gentrification-art->

- galleries, html (2021년 3월 14일 접속).
- Mejia, Brittany, Steve Saldivar. “Boyle Heights Activists Blame the Art Galleries for Gentrification,” *Los Angeles Times* (August 4, 2016), <https://www.latimes.com/local/lanow/la-me-ln-self-help-graphics-20160718-snap-story.html> (2021년 4월 24일 접속).
- Stromberg, Matt. “Boyle Heights Art Space Closes, Blaming Anti-Gentrification Activists” (February 2017), <https://hyperallergic.com/360174/boyle-heights-art-space-closes-blaming-anti-gentrification-activists/> (2021년 3월 28일 접속).
- TATE 홈페이지, <https://www.tate.org.uk/intermediaart/entry15414.shtm> (2021년 3월 27일 접속).
- Ultra-red. “Desarmando Desarrollismo: Listening to Anti-Gentrification in Boyle Heights,” *Field* (January 2021), <http://field-journal.com/issue-14/desarmando-desarrollismo> (2021년 3월 29일 접속).
- Zara, Janelle. “PSSST Offers an Alternative to the Art World Status Quo” (July 2016), [www.culturedmag.com/pssst-art-gallery/](http://www.culturedmag.com/pssst-art-gallery/) (2021년 3월 27일 접속).

본 연구는 갤러리 대상의 과격한 공격으로 논란이 되었던 로스앤젤레스 보일하이츠의 젠트리피케이션 저항 행동주의 사례를 ‘예술세탁’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먼저 ‘예술세탁’과 갤러리의 관계성을 분석한 후, 보일하이츠의 젠트리피케이션 행동주의의 영향력과 한계, 그리고 예술, 정치, 사회적 함의에 관해 논의한다.

보일하이츠의 갤러리 공격 사건은 인종, 계층과 연관된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를 예술의 긍정적인 이미지로 위장하는 ‘예술세탁’에 대한 공중의 적대를 보여주고 있다. 이 행동주의 사례는 근원적인 정치경제적 구조가 아닌 갤러리를 공격하는데 그치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을 막는 것에는 실패하였다. 그러나 쟁투적인 저항 전략으로 미디어와 학계의 관심을 끌며 젠트리피케이션, 예술, 도시와 사회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를 활성화하였다. 도시계획의 관점에서는 공식적인 도시개발의 배제성을 드러내고 소수자의 주택 권리를 고려하도록 정책의 변화를 촉구하였다. 나아가 울트라-레드를 비롯한 예술가들이 주도한 이 저항 행동은 정치적 실천과 예술을 동일시하는 안티-젠트리피케이션 행동주의 미술의 실험적 형태를 제시하였으며, 커뮤니티의 주택 권리와 정의를 위해 투쟁하는 ‘저항의 예술’과 ‘장소의 수호자’로서 예술가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무엇보다도 예술과 젠트리피케이션 간의 긴밀하고 문제적인 협업 관계를 드러내는 이 사례는 ‘예술세탁’과 관련하여 예술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비판적 성찰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anti-gentrification activism in Boyle Heights, Los Angeles through focusing on the concept of ‘artwashing’. This activism has raised controversy due to aggressive attacks on art galleries. First, I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art gallery and artwashing, and then discuss the effects, limits and the artistic, political and social implications of Boyle Heights’s activism.

The attacks on galleries in Boyle Heights imply public antagonism toward ‘artwashing’—the disguising of negative aspects of gentrification associated with race and class through the positive images of art. By attacking galleries rather than the fundamental political and economic structure, this activism failed to prevent gentrification. However, it provoked diverse debates surrounding gentrification, art, city, and society by gaining media and academic attention with its antagonistic strategies. From the perspective of city planning, it revealed the exclusiveness of official urban development and demanded policy changes that consider the housing rights of minorities. Led by artists including Ultra-red, this act of resistance suggested an experimental form of anti-gentrification art activism that takes political practices as an art. Fighting for the community’s housing rights as well as housing justice, this resistance also showed the ‘art of resistance’ and the role of artists in ‘place guarding’. This case has implications for critical reflections concerning art’s social role by disclosing the problematic collaboration between art and gentrification.